

‘남도한바퀴’ 1박2일 상품 관광객 1억명 유치 이끈다

10일부터 매 주말 4회 운영...광주유스퀘어·송정역서 출발 17만9천원 ‘목포-강진-순천-곡성 코스’ 체류형 관광 기대

합리적 가격으로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편리하게 즐기는 ‘남도한바퀴·사진’가 볼 테마상품에 이어 ‘1박2일 남도여행’ 상품을 출시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국내외 여행객 1억명 유치를 선도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한바퀴 ‘1박2일 남도여행’ 상품은 오는 10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일요일 총 4회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1인 17만9천원으로 왕복 버스비, 식사비 4식, 숙박비(2인 1실) 등이 포함됐다.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 또는 전화(062-360-8502)로 하면 된다.

여행은 1일차엔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목포 해상케이블카 및 고힌도 데



크길,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강진만 생태공원과 가우도 등을 들른다. 강진에서 1박 후 2일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곡성 섬진강기차마을로 구성했다.

전남은 최고의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임에도 수도권 관광객에게는 접근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번 ‘1박2일 남도여

행’ 상품은 수도권 등 외지 관광객의 전남 방문과 체류에 큰 매력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박2일 남도여행’ 상품은 KTX·SRT 이용객은 광주 송정역에서, 고속버스 이용객은 광주유스퀘어 터미널에서 탑승하면 된다. 버스는 토요일 오전 11시 광주유스퀘어, 11시25분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한다.

전남도는 남도한바퀴 1박2일 남도여행 상품 출시에 맞춰 서울·용산·수서역과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에서 전단지 홍보하고, 지역 유튜브, 사

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상품을 알릴 계획이다.

조대정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가 당일 여행상품만 운영해 원거리·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남 곳곳의 빼어난 관광지와 음식 등 알차게 준비한 1박2일 상품을 통해 힐링관광 중심지로 떠오르는 전남에서 추억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전남도는 ‘1박2일 남도여행’ 상품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계절별 테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광주 외국인유학생 첫 실태조사

광주시는 7일 “오는 16일까지 ‘광주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새로운 대학 입학 자원을 발굴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지역 대학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약 4천여명이며 조사 기간은 16일까지다.

조사 내용은 ▲대상자 성별·나이·출신국가 ▲광주권 대학 지원경로 등 유학 선택 과정 ▲유학생활 만족도 ▲진로·취업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광주시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 온라인 설문조사지 QR코드 또는 인터넷주소 (https://ko.research.net/r/foreign_ST)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선경기자



백세건강·백세활력·백세문화 2023년 6.5day 기념

제2의 인생은 65세부터... 광주 동구는 7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가·문화프로그램과 노인인사자, 사회활동정보 등 노인복지서비스 안내와 공연을 즐길수 있는 ‘6·5데이(day)’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주동구 제공>

‘곡성 자매가’ 최미라 대표 年1억3천만원 수익 농산물 2차가공형 소득모델 성공 정착

곡성에서 ‘농산물 2차가공형 소득모델 구축’으로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강소농업인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인 ‘곡성 자매가’ 최미라(45) 대표는 도시 생활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어머니가 거주하는 고향 곡성군 죽곡면으로 돌아와 보성강 실개천 강가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다.

효녀 심청의 고향, 곡성의 마음을 담은 첫째와 넷째 자매는 3대째 전통방식 그대로 숯불에 구워 만든 전통한과의 맥을 잇고 있다.

두 자매는 한 곳에 똑같은 지분을 짓고 작은 식품 제조공장을 건축했지만 어떻게 농촌 정착형 소득 모델을 구축할 것인가 고민하다 2018년에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강소농에 등록했다.

또 김부각과 토란떡파이도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간식과 식사 대응 제품이 다. 김부각은 진도의 김과 곡성의 찹쌀을 이용해 바삭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기호성 제품으로 매주 목요일만 사전 예약제로 생산해 각광받고 있다.

최미라 대표는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하는 가치관을 갖고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2차 가공과 매실 과수원을 활용한 농촌 체험 등을 결합한 힐링형 모델 구축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2일 실시

市·동구, 실전 대응태세·재난안전통신망 등 역량 점검

광주시가 오는 12일 시정 재난상황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통합 연계방식으로 동구와 함께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부서·기관별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난 대비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동구, 23개 기관·단체, 시민

등 800여명이 참여하고 장비 60여대가 동원돼 다중 밀집 인파사고 발생 때 신속한 상황전파·관리, 조동조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연장 폭죽 폭발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과 관람객 압사 사고로 이어지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상황을 가정해 ▲최초 상황 접수·전파 ▲신속한 조동 대응 ▲광주시·자치구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민·관·군·경 협업 대응 체계 점검 ▲문제점·

개선 대책 중점 토론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대응·수습 및 복구 훈련을 한다.

또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 연계훈련’으로 ‘현장-상황실 다원중계 시스템’을 구축, 광주시와 자치구 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대응, 자원 지원, 수습·복구 체계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사고 현장에 수소 드론을 띄워 밀집된 인파를 분산시키는 음성 방송 기술을 시연하고, 피플 카운팅(People Count), 안면인식 인공지능(AI)

드론 기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안전 신기술도 선보인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 지휘·통제 및 유관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신종재난 대비 재난관리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범국민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종합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박선경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